
2023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운용보고서

2024년 03월 12일



목차

- 1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설계
- 2 예술인상호부조대출 특징
- 3 예술인상호부조대출 현황
- 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성과, 시사점, 발전방향

1.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설계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을 설계한 목적은 사회시스템상 금융취약계층인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 용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뉘는데, 담보대출은 가진 자산을 담보로 내어놓고 용자를 받는 것이니 논외로 하고, 우리에게서 신용대출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규제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놓고 있다. 첫 번째 관문은 신용점수이고 두 번째 관문은 DTI, DSR 같은 규제이다. 예술인은 이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구조는 정규적인 수입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인데, 예술인의 수입은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아도 규칙적이지 않고 평생소득 개념으로 놓고 보아도 창작자는 나이가 들어야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실연자는 중년까지의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평가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DTI(Debt to Income - 총소득중에서 부채상환가능비율), DSR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으로 총소득대비 기준을 삼는데 총소득이 제대로 신고되기 어려운 구조라 실제 소득대비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받은 만큼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식당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올해 번 만큼 내년에도 벌 것으로 추정하지만 예술인은 소득이 워낙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득평가에 있어서도 정성적으로 더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금융시스템의 평가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연구를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고, 그 중간의 해결책이 문화예술계에서 오래 논의되었던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술인금고 같은 것이다. 예술인금고의 중간기착지 또는 초기 시작으로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이 있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매월 초에만 용자를 신청받는다라는 것, 신청 후 대출 시점까지가 너무 긴 것,

그리고 긴급생활자금은 소득제한을 두고 있는데 소득이 많아도 대출 대상이 아니고, 소득이 너무 적어도 상환이 어려우니 대출대상이 안되는 문제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예술인상호부조 대출을 설계했다.

2. 예술인상호부조대출 특징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모은 기금을 기본으로 해서 대출 총한도를 설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걸 정부의 정책자금 동향이나 자금과 관련한 외부 환경 변화에 얽매이지 않게 한다. 자체적인 자금을 기준으로 운영하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자체 운영이라서, 특정 시기에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걸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대출기관의 필요가 아니라 대출 수요자의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게 설계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의 MOU를 기반으로 북서울신협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대출인데, 대출안정기금의 존재 때문에 신용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다만 대출기관이 공인된 금융기관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인 신용정보조회상의 특수정보등재(연체 등)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 밖에 없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이자 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대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900점 이하일 경우 대략 신용대출로는 금리가 10% 내외이고, 신용점수가 800점 이하이면 신용대출 금리로는 보통 15% 내외가 된다. 또한 긴급하게 대출 받는 신용카드현금서비스는 15%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북서울신협이라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대출

로,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것보다 자금의 효율성이 좋고 행정의 어려움이 적다. 기금으로 직접 대출하는 것에 비해 북서울신탁과의 협약으로 총대출한도의 15%를 기금으로 예치하면 되도록 설계했기에 기금범위내로 직접 대출하는 것에 비해 약 7배 가까운 자금 효율성을 보이며, 대출금 회수 등에 관련한 행정 노력 또한 금융기관이 해결하기에 이 어려움도 해결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모든 대출자가 대출 총액의 3%를 특별조합비로 납부하여 이를 기금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이걸 모든 대출자가 상호 부조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기여를 통해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을 확장하고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년 운영한 결과로 대출 신청하고 익일 바로 대출이 가능한 익일소액대출을 재단법인 밴드와의 협약을 통해 100만원 한도 대출을 2024년에 새로 출시했다. 이 익일소액대출은 재단법인 밴드가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인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3. 예술인상호부조대출 현황

가. 대출상품

- 예술인긴급생활자금 대출
대출한도 200만원 (2024년부터 300만원으로 증액), 1년원리금분할, 금리 5%,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 예술인프로젝트준비 대출
대출한도 500만원(2024년부터 잠정중단), 6개월 만기일시상환, 금리 5%,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 예술인익일소액 대출
대출한도 100만원(2024년부터 시행), 익월말 일시상환, 서류접수 익일대출, 금리 5%,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나. 대출현황

● 연도별 대출실행현황

- ✓ 2022년 12월19일에 시행되어서 2022년도에는 3건의 대출이 있다.
- ✓ 2023년에 본격화 되어서 총 82건 190,000,000원이 실행되었다.
- ✓ 2024년에는 긴급 생활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익일 소액 대출이 신설되어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98,000,000원이 실행되었고, 익일 소액 대출은 350만원이 상환되었다.

대출실행년도	대출종류	건수	대출총액	상환액
2022		3	6,000,000	6,000,000
	긴급생활	3	6,000,000	6,000,000
2023		82	190,000,000	111,611,191
	긴급생활	73	147,000,000	111,611,191
	프로젝트	9	43,000,000	
2024		44	98,000,000	3,618,910
	긴급생활	25	75,000,000	118,910
	익일소액	18	18,000,000	3,500,000
	프로젝트	1	5,000,000	
총합계		129	294,000,000	121,230.101

● 대출종류별 대출 현재 상태

- ✓ 긴급 생활자금 대출 건수: 101건으로 총 228,000,000원이 실행되었다. 현재까지 완납된 경우는 33건으로 67,000,000원이 완납되었으며, 원리금 분할 상환 중인 151,000,000원 중 약 4천만원이 상환되었다.
- ✓ 익일 소액 대출: 2024년에 시행되었으며, 대출 건수는 18건이다. 2월 말에 3건이 완납되었고, 6건은 6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재조정되었다. 특이하게 2월에 상환된 3건 모두 3월에 재대출 신청하여 전부 대출 실행되었다.

대출종류	현재상태	건수	금액	상환액
긴급생활		101	228,000,000	17,730,101
	대지급	5	10,000,000	10,000,000
	완납	33	67,000,000	67,000,000
	진행중	63	151,000,000	40,730,101
익일소액		18	18,000,000	3,500,000
	완납	3	3,000,000	3,000,000
	진행중	15	15,000,000	500,000
프로젝트		10	48,000,000	
	진행중	10	48,000,000	
합계		129	294,000,000	121,230,101

● **남녀별 대출현황**

✓ 남자가 전체 79건의 대출을 실행했고, 여자가 전체 50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조합원 전체의 남녀 비율 통계가 없어서 남녀 간의 비율 차이는 알 수 없어서 현재 상황만 제공한다.

성별	대출종류	건수	대출실행액	상환액
남		79	183,000,000	65,306,863
	긴급생활	60	138,000,000	62,906,863
	익일소액	12	12,000,000	2,400,000
	프로젝트	7	33,000,000	-
여		50	111,000,000	55,923,238
	긴급생활	41	90,000,000	54,823,238
	익일소액	6	6,000,000	1,100,000
	프로젝트	3	15,000,000	-
총합계		129	294,000,000	121,230,101

● **연령별 대출현황**

✓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대출건수가 발생했고, 30대가 제일 대출 건수와 금액이 제일 많다.

✓ 50대, 60대로 갈수록 남자의 대출비율이 높고, 여자의 대출비율이 낮다.

연령대	남녀	건수	대출실행액	상환액
20		18	40,000,000	16,766,254
	남	8	17,000,000	5,623,359
	여	10	23,000,000	11,142,895
30		44	101,000,000	48,536,981
	남	25	56,000,000	27,451,467

	여	19	45,000,000	21,085,514
40		27	63,000,000	20,199,513
	남	14	35,000,000	7,569,138
	여	13	28,000,000	12,630,375
50		23	56,000,000	18,936,607
	남	17	44,000,000	9,972,153
	여	6	12,000,000	8,964,454
60		16	31,000,000	16,790,746
	남	14	28,000,000	14,690,746
	여	2	3,000,000	2,100,000
70		1	3,000,000	
	남	1	3,000,000	
총합계		129	294,000,000	121,230,101

● 장르별 대출현황

- ✓ 조합원의 비율이 높은 음악,연극,미술이 대출비중이 높았다.
- ✓ 장르별 특별한 특이점이 보이지는 않는듯함.장르별로 특별한 눈에 띄는 점은 없다.
- ✓ 전반적으로 모든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대출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장르별	건수	대출실행액	상환액
국악	7	15,000,000	5,292,562
만화	4	11,000,000	2,000,000
무용	5	13,000,000	2,655,320
문학	2	6,000,000	
뮤지컬	3	10,000,000	1,609,331
미술	16	41,000,000	15,600,683
사진	9	25,000,000	8,100,000
연극	32	63,000,000	32,249,594
영화	9	15,000,000	10,508,193
음악	37	84,000,000	35,725,800
방송작가	5	11,000,000	7,488,618
총합계	129	294,000,000	121,230,101

● 연도 월별 대출현황

- ✓ 2022년에 시행된 대출은 12월 19일에 시작되어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 ✓ 2023년 1월은 대출시행공지를 오래했기에 대기 수요가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3년 12월까지의 대략 큰 편차 없이 대출건수가 발생했다.
- ✓ 2024년 1월과 2월의 건수 증가는 익일 소액 대출의 신규 도입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경기의 하강과 연말 연시의 불황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년간의 데이터가 더 축적되어야 평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 ✓ 대출건수가 2024년에 들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년도	월	건수	대출실행액	상환액
2022		3	6,000,000	6,000,000
	12	3	6,000,000	6,000,000
2023		82	190,000,000	111,611,191
	1	16	32,000,000	32,000,000
	2	9	18,000,000	18,000,000
	3	3	6,000,000	5,147,993
	4	6	12,000,000	9,283,142
	5	8	16,000,000	11,428,671
	6	8	16,000,000	10,414,387
	7	5	10,000,000	5,949,947
	8	6	12,000,000	8,463,117
	9	4	9,000,000	4,801,380
	10	6	19,000,000	2,981,053
	11	6	21,000,000	2,652,590
	12	5	19,000,000	488,911
2024		44	98,000,000	3,618,910
	1	17	35,000,000	3,618,910
	2	21	53,000,000	
	3	6	10,000,000	
총합계		129	294,000,000	121,230,101

● 완납후 다시 대출진행 현황

- ✓ 완납 36건과 대지급 5건을 합쳐 총 41건 중 14건이 다시 대출을 했다.
- ✓ 34.15%의 높은 비율로 재대출을 진행중이다.

- ✓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익일 소액 대출을 완납한 사람들은 전부 다음 달에 다시 익일 소액 대출을 신청했다.

● 대지급 현황

- ✓ 대지급 총액은 7,773,967원이며, 대출 총액 대비 금액으로는 2.64%, 건수로는 3.88%이다. 대지급금도 상환되어 현재 대지급 잔액이 4,928,305원이 남아있는데, 이는 현재의 대출 잔액 대비해서 2.85%이다.

	건수	총액	잔액
대지급총액	5	7,773,967	4,928,305
대출총액	129	294,000,000	172,7698,899
대지급비율	3.88%	2.64%	2.85%

- ✓ 대지급 건수는 총 5건으로 대출 총 건수 129건 대비 3.88%이다. 총액으로는 2.64%, 잔액으로는 2.85%이다. 처음 대출을 설계할 때 연체 및 대지급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건수 기준으로는 3.88%로 초과되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 이내로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
- ✓ 올해 국내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연체율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안정기금납부현황

	금액	비율	비율이란?
안정기금납입현황	7,562,825	97.28%	안정기금납입/대지급
대지급액	7,773,967	102.79%	대지급/안정기금납입

- ✓ 안정기금은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출 기간 동안만 대출 총액의 연 3%를 특별 조합비로 납입하게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대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 대출 총액의 3%를 특별 조합비로 받아 안정기금을 유지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고 대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지급 대비 안정기금 납입 현황을 보면 설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상황을 고려하여 잘 설계된 결과다.
- ✓ 다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출이 2024년에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것이

대출 연체율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질지는 1년 후에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다.

● 가입후 대출까지의 기간

가입후신청까지기간	대출액	비율
1개월 이내	115,000,000	39.12%
1달~1년	52,000,000	17.69%
1년~2년	21,000,000	7.14%
2년~3년	73,000,000	24.83%
3년~4년	33,000,000	11.22%
총합계	294,000,000	100.00%

- ✓ 조합 가입 후 대출 기간을 보면 조합 가입 1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비율이 약 40%에 가깝다. 긴급 생활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가입 즉시 대출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결과다.
- ✓ 가입즉시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은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입 하자마자 대출이 가능하기에 예술인 일반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 이러한 가입즉시 대출이 가능한 특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대출을 받고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후 즉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조합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 첫 번째 우려에 대한 결과는 대출 상환 후 탈퇴한 사람이 1명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대출만 받고 대출 상환 후 다시 탈퇴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였다고 판단된다.
- ✓ 전체 대지급한 사람은 총 5명인데, 이 중에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사람의 대지급자가 2명이고, 전체 대출 중 1개월 이내 대출자의 비율이 39.12%다. 따라서 대출자 비율과 부실자 중에 1개월 이내인 사람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입 즉시 대출 받은 사람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생각한 우려 역시 기우였다고 판단된다.

4.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성과 , 시사점 , 발전방향

예술인상호부조 대출은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워 고금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예술인에게는 단비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10명인데 누적으로 129건, 111명이 대출을 받아간 것은 인원대비 21.76%가 이용하여 총 조합원 대비 상당한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전체 대출자중 40% 가까이가 가입즉시 대출신청을 한 것을 놓고 볼 때 기존 조합원만이 아닌 예술인의 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원 대비 대출비율이 유지된다고 본다면 조합원의 증가에 맞춰서 기금의 확충을 빠른 시간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이라 함은 필연적으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를 하여 신용점수를 차별화하고, 차별화된 신용점수에 따라 장래 연체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이자를 더 받아서 어떤 사람은 6%의 금리를, 어떤 사람은 19.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신용평가기관과 협약하지 않아 우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신용도를 대출자의 신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없으나, 대출전에 대출자를 상담했을 때의 판단으로는 평균적으로 예전 신용등급 6-7-8등급에 분포하리라고 보인다. 이들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신용카드, 대부업자들에게 가면 평균적으로 18% 내외의 대출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연체 및 부실현황이 약 3% 내외인것을 놓고 보면 대출기관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금리를 받을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는 예술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총 294,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는 예술인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약 44,100,000(미실현이자포함)원 정도의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절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금 42,000,000원으로 1년이 조금 넘어서 그보다 더 큰 44,100,000만원을 절감시켰다고 보이며, 이는 대출안정기금의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출안정기금이 더 확장되면 더 많은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이기예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안정기금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출안정기금만을 가지고는 대출총한도가 2억8천이라서 빠른시일내에 확장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기금을 확충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예를들어 이 기금이 300만원

확충되면 2,000만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이 2,000만원이 대출이 되어서 고금리를 예술인상호부조대출로 차환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이자 절감액만 최대 30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금이 확충되는 거의 그 금액만큼 예술인들이 고리의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구조여서 기금의 확충이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기금의 확충이 절실하며 독지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출 한도를 1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인당 대출한도 300만원은 작은 소액이고, 약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야말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자금이다. 우리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예술인에게 의미 있는 정도의 금융 또는 상호부조로 자리잡으려면 적어도 1천만원까지는 대출한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이 조성된 기금을 기본으로 대출하는 시스템과 다르게 금융이 필요한 사람이 미리 부금을 넣고 그 부금의 몇 배수를 대출한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제부금대출을 참조하여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신용점수가 낮은 예술인에게 1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또다른 장애물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시스템이다. DSR과 DTI등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어서 현존하는 금융시스템 내에서는 1인당 대출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와 시도, 문제 해결력 등이 필요하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북서울실험이라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파트너가 있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마치 콜롬부스 달걀처럼 진행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처음은 심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을 설계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선뜻 손을 내밀어주고 과감히 실행해준 북서울실험에 감사한다. 또 익일 소액대출은 정규 금융기관도 아니고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특성상 접수익일날 대출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선뜻 나서준 재단법인 밴드에 감사하다. 이런 도전과 협력이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태어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기금을 후원해준 독지가가 있어서 초기에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만들어지자마자 기금이 부족했었는데 그 때의 후원으로 대출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들이 모두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장기적으로 대출 데이터를 누적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예술인금고로 가는데 필요한 징검다리로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